



김제경찰, 전국 최초 시청 등록 '무더위 쉼터' 운영

김제경찰서(총경 박승준)는 전국 경찰서 중 최초로 '김제시청에 등록된 공식 무더위 쉼터(제287호)'를 설치 운영하며 폭염 속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무더위 쉼터는 경찰서 입초 앞 공간에 조성되어 탄소발열의자를 비치해 지면의 열기를 차단하고 기온에 맞춰 시원한 온도로 운영되게 하였고 자동여닝(그늘막)을 설치해 시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아이스박스에 얼음 생수를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도 부착해 안내하는 교육 효과도 거두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농협, 올 상반기 농축협 신규임용 직원 교육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24일 전북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농축협 신규임용직원 75명을 대상으로 농업의 역할 등 직원으로서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교육은 용진농협 이종진 조합장 구례교육원 기영은 원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이종진 조합장은 94년 농협에 입사하여 대한민국 최초 로컬푸드1호점 개설, 아울러 용진농협 제15대 조합장이 되기까지 경험을 생생하게 강의 하는 등 농협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으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다. /오상근 기자



남원 운봉읍 지사협, 삼계탕 나눔

남원시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특화사업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지원사업으로, 협의체 위원과 마을 이장과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200가구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영양보완식 삼계탕을 전달하였다.

이번 삼계탕은 협의체에서 200가구, 남원지역활력센터 지리산스타에서 50가구, 지리산노인복지센터에서 생닭 305가구에 지원하였다.

한 어르신은 "날씨가 너무 더워 입맛이 없어 힘들었는데 가정에서 직접 방문해서 삼계탕을 가져다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청소년 물놀이 캠프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4일 가족사랑요양병원 효도리 사업단 지원으로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승택이 복지관 이용 청소년과 2025년 아동청소년 물놀이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실외활동 기회가 적은 장애인가를 위해 기획된 이번 캠프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치료를 이용하는 학령기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과 보호자 등 3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원한 물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소셜아이어워드 2025 '2관왕'

남원시, 2025 기초지자체 분야 블로그 · 인스타그램 부문서 대상 수상

남원시는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기초지자체 분야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소셜아이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아이어워드위원회사무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비주얼,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5개분야에 대해 4,000명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남원시는 '피어나다 남원'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중심으로 블로그는 정보 중심의 포스팅으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카테고리를 단순화하여 편의성을 높였으며, 인스타그램은 피드 디자인을 통일해 보다 직관적으로 정보 제공하였고 시민 참여와 릴스 콘텐츠를 활성화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을 실현한 부분에 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과 소통하려는 전



직원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통해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남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2025 무주군 농민회 한마음 가족대회 성료

2025 무주군 농민회 한마음 가족대회가 24일 무풍면 무풍송지마을에서 회원과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무주군 농민회가 주관하고 무주군과 무주군의회, 지역 농업 및 유관 기관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농업인의 단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무주 농업 발전을 기원했다.

참석자들은 단합행사와 함께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 대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농업인들은 미국산 사과 수입이 국산 과수 산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면서 "값싼 수입 과일이 하나둘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우리 과수 농가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무엇보다 사과를 지키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자 반값 사과와 고장 무주를 지키는 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농민회 회원 여러분이 바로 무주 군민의 중심, 무주 농업의 핵심"이라며 "우리 사과를 지키고 나아가 농민이 존중받으며 살기 좋은 농촌,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했다.

한편 무주군 농민회는 농민 권익 보호와 농업환경 변화 대응 우리 농산물 지키기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장학금 기탁, 마을자연정화, 산불파해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영농 발대식과 풍년기원제를 주관하며 지역 농업인의 단결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2025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성공적 마무리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이 주관하고 고창군청이 함께 지원한 '2025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7월 11일~20일, 8박 10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탐방에는 고창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5명과 인솔교사 3명, 교육지원청 관계자 2명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 함양과 진로 탐색, 역사문화 체험을 통한 폭넓은 세계관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고창교육지원청과 고창군청의 예산 지원으로 실현됐다. 프로그램은 미국 동부 및 캐나다 주요 도시와 교육기관 탐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글로벌 교육 경험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등 미국 동부 주요 도시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등을 방문하였다. 특히 북미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인 하버드대학교, MIT, 프린스턴대학교, 예일대학교,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등을 탐방하며 직접 보고 듣는 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았다.

프린스턴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는 현지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직접 캠퍼스를 안내하는 가이드 투어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각 학교의 역사적 장소, 대표적인 학습 공간 및 생활 시설 등을 둘러보았으며, 소규모 그룹 Q&A 시간을 통해 입학 동기, 대학 생활 공부 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명문대학의 실제 분위기와 학생 문화를 직접 체감하며 동기 부여를 얻



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하버드대학교와 MIT에서는 각각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이 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강 주제는 △미국 대학의 교육 환경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 전략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 등이었으며, 멘토링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진학 준비, 전공 선택, 공부 습관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교과서나 뉴스에서만 보던 대학들을 실제로 체험하니 막연했던 꿈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멘토 선배들의 경험담이 큰 자극이 되었고, 글로벌 진로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익산민음신협, 신협사회공헌재단에 200만원 기부

익산민음신협(이사장 임병길)은 지난 23일 익산민음신협 본점(익산시 황등면 소재)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20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신협중앙회 강연수 전북지역본부장과 익산민음신협 임병길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8명이 참여했다. 익산민음신협은 2020년부터 신협사회공헌재단의 나눔문화 확산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자 기부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 200만 원 전달로 익산민음신협은 재단누적기부금 12,850,000원을 달성하게 되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14년 출범한 전국 신협과 임직원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부활동조합이다. 24년 12월 말 기준 정기 기부자 5,618명이 누적 기부금 652억 원을 조성했으며, 24년 사회공헌사업 규모는 54억 원에 달한다. 건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동행경제', '협동조합형'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인재양성', '지



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나눔' 세 영역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아동·청소년 멘토링, 은세상나눔캠페인(에너지 취약계층 생활지원), 행복한집 프로젝트(주거환경 개선사업)가 재단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오상근 기자



부안농협 '천년의 솜씨' 신동진쌀, 캐나다에 수출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은 지난 24일 부안농협 미국종합처리장에서 조합장을 비롯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에 '천년의 솜씨 신동진쌀' 2t을 수출함에 올렸다.

이번 부안농협 '천년의 솜씨' 쌀 캐나다 수출은 지난해 3차에 걸쳐 235t을 수출했다.

지난해 천년의 솜씨쌀 수출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쌀값 지지 및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이루어지며, 부안농협은 7차에 걸쳐 37개국 270t을 수출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수출한 쌀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냉장 컨테이너로 운송되며, 인공지능(AD)기술로 적정 수분 함량을 유지해 최상의 맛만을 보장한다. 이러한 첨단 유통방식은 해외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철 조합장은 "해의 수출을 1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의회,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지난 7월 23일,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으며,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PPT를 활용해 고위공직자들의 청렴 실천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김영태 의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시금 되새기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남원시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태 의장

강의에서는 △청렴의 개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의원 직무 권한을 중심으로 한 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으며,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PPT를 활용해 고위공직자들의 청렴 실천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김영태 의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시금 되새기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남원시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통해 고립가구 생명 구해

남원시는 최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한심하이' 사업을 통해 고립 가구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운봉우체국 박정현 집배원은 늘 집에 계시던 고립 가구 어르신이 응답하지 않고, TV가 없는 집에서 미약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 안을 살피던 중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독거노인은 구급차를 타고 삼승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으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박정현 집배원은 "5월부터 주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을 잘 알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랐던 분위기에 이상함을 느껴 신속히 살폈더니, 어르신이 빨리 쾌차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여성단체협의회,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진)가 24일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장학금 기탁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말 기집 만들기 및 판매 행사를 진행하여 얻은 판매수익금으로 마련, 학업에 열정을 가진 남원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돼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은진 회장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힘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